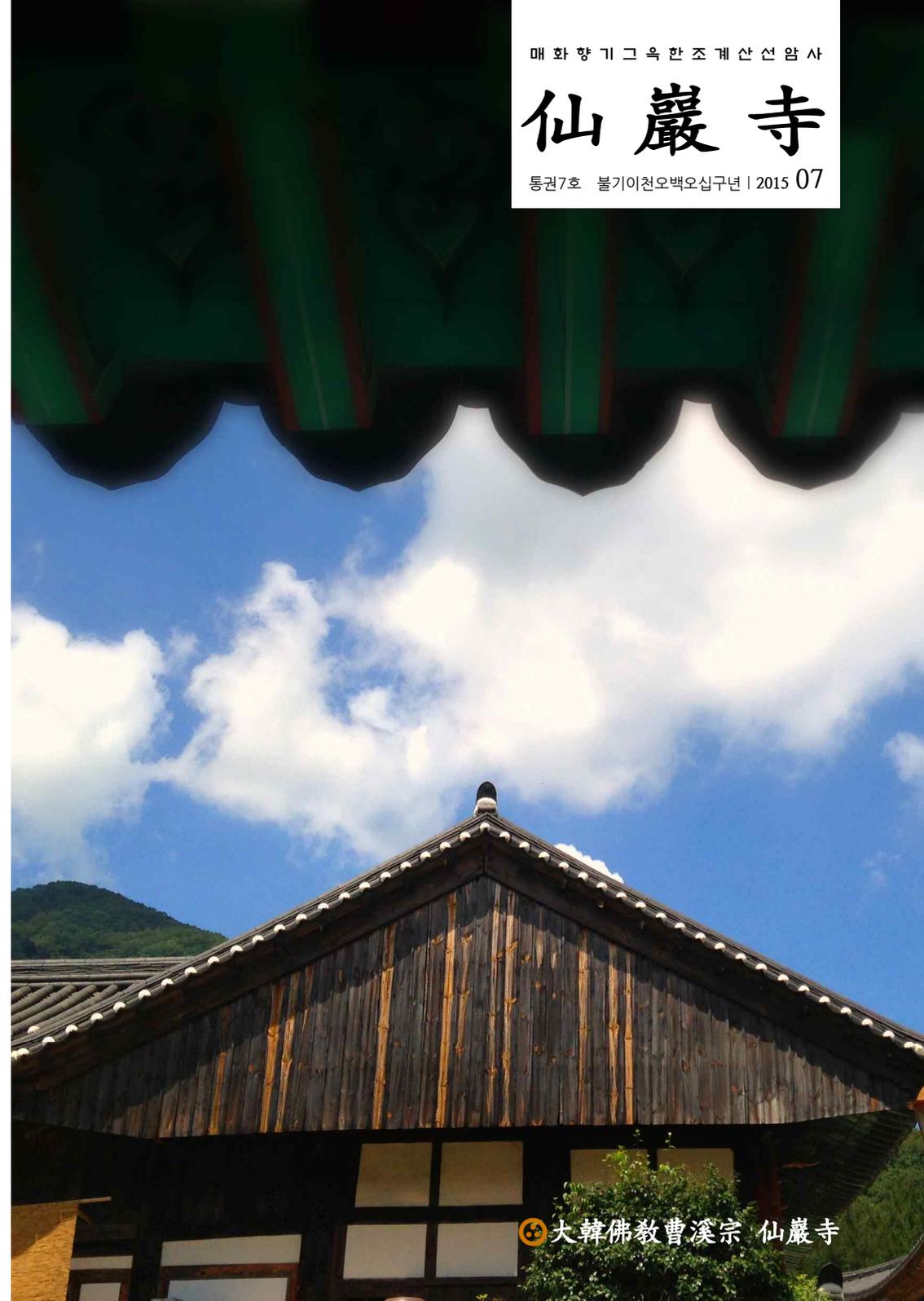


매화향기 그윽한 조계산 선암사

仙巖寺

통권7호 불기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7



大韓佛教曹溪宗 仙巖寺

선암사의 선지식



눌암 식활 (訥庵 識活 1752 - 1830)

눌암스님은 1752년(영조28) 순천 울촌면 삼산리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법휘는 식활(識活), 법호가 눌암(訥庵), 속성은 전(全) 씨다. 17살(1768년)에 순천 선암사로 출가했다. 선암사에서 상월 새봉스님의 법손인 혜암 윤장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과 묘향산 법왕봉에서 머물며 참선수행하였다. 이에 수많은 학인들과 신도들이 찾아와 법문을 청하고 스승으로 받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평안감사로 있던 조선시대 문신 윤사국이다. 송유역불 시대에 고위직에 있던 관료를 제자로 둔 자체만으로도 당시 스님의 명성을 가늠할 수 있다. 스님은 1830년 선암사 청련암에서 세수 62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 7호 2015년 06월 29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눌암 식활	2
주지스님 법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 승보의 이해	4
특 중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6
조계산 편지	虎視牛行 - 주인된 자의 도리	8
선암사의 정보	순천 선암사 원통전 관세음보살좌상	10
이달의 풍경	연화삼매(蓮花三昧)	12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6) - 수하항마(樹下降魔)	14
특별 인터뷰	경문 정병택 변호사	16
미얀마 리포트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18
선암사 소식	6월 행사 및 7월 예정행사	20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22
선암사 안내	선암사 성지순례, 月刊 仙巖寺 정기구독	23



표지설명 : 선암사의 여름
선암사에 여름이 찾아 왔다.
비 개인 하늘에 구름이 피어오른다.

사진 진 우

발 행 일 2015년 06월 29일
발 행 인 법원(法願)
발 행 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 집 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현광 허수길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HTTP://www.선암사.org

삼보에 귀의 합니다

- 승보의 이해 -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오늘은 불, 법, 승 삼보 중에 마지막인 승보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지난 법문을 통해서 불보와 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보 중 마지막 세 번째 승보는 무엇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승(僧)이라는 말이 스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이라면 응당 귀의해야 할 대상인 삼보 중에서 승보에 대해서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맹서합니다.

그러나 원래 승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의 집단인 교단을 의미했는데, 후에는 개개인의 승려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승이란 승가(僧伽)의 약칭입니다. 그리고 승가라는 말은 원래의 발음인 상가(Sagha)의 음을 모사한 것입니다. 상가의 의미는 무리, 모임, 집단 등의 의미로 모임이나 집단은 무엇보다도 화합을 중시하는데 이를 다수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 화합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가는 단순히 불제자의 집단인 교단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미래 지향의 모범적인 사회조직체로서 구상된 것이 상가, 즉 불교교단으로 이상적인 사회공동체가 불교의 상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불교교단을 흔히 사부대중이라 하는데 출가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각각 비구와 비구니라 하고, 재가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각각 우바새(優婆塞)와 우바이(優婆夷)라 합니다.

“승가는 공동체의 이상향”

앞서 말한 대로 불교에서 승이란 일상적으로 개개인의 스님을 지칭하는 말로서 쓰이고 있지만, 그 포괄적인 의미는 일반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불교교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 승가 또는 상가라 할 때는 출가집단인 승단(僧團)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형성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조직체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추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처님은 이들을 통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써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나 신도들이 그것을 기억해 정리하고 보존해 전달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람들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을 확인하고 정리해 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결집(結集)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불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승단을 통한 불법의 전수”

결집이란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함께 암송하는 것이란 의미로 경전을 편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문자화되지 않았고 이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다음 결집에서 경전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오늘에 이르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제 1결집은 부처님 입멸 직후에, 제 2결집은 입멸 후 100년, 제 3결집 입멸 후 300년이 지난 아쇼카왕 시대입니다. 결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삼장(三藏) 즉 경(經)·율(律)·논(論)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암송으로 후대에 전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그렇게 스님들은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담고 전한 그릇이었으며는 부처가 되기 위해 치열한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보는 몸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함께 삼보로서 예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기2559년 5월 법문에서... ☺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층, 민사대법정에서는
작지만 큰 울림이 있었다.

“사건번호 2014나5126*호, 항소기각!”

2011년도부터 만4년을 넘게 끌어온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항소
심 판결은 원고의 완전 승소인 항소기
각이 선고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암사의
부지는 등기와 마찬가지로 ‘대한불교조
계종 선암사’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선암사 정상화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
를 지닌다.

아울러 순천시의 적절치 않은 행정행
위로 인하여 침해받았던 우리 선암사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더욱 공고
해진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하여 지난 6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1심에 이어 2심에서 순천시
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 ‘대한

불교조계종 선암사’를 부정하며 ‘선암사’
가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였던 태고종
선암사는 상고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
경이 주목된다.

태고종 선암사가 상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2심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피하려는 의도
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정병택
변호사의 견해이다.

이번 소송은 종단 소속 정병택 변호사
1인이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가 공동
으로 선임한 7명의 변호사와 법정 공방
에서 승리한 점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병택 변호사는 ‘사필귀정
(事必歸正)’이란 짧은 말로서 소회를 대
신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2심까지 승
소하였으나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고 또
그 중간에 순천시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이 있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하
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편집실



주지 법원스님 총무국장 진우스님 정병택 변호사 김희철 총무실장 허수길 총무주임

차 체험관 항소심 승소의 주역들

법원스님은 ‘차 체험관 소송에서 우리가
2심까지 당당하게 승소한 것은 선암사
의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는 본 소송을 통하여 침
해받은 우리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선암
사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무게
를 두고 있는 만큼, 순천시가 수용 가능
한 제안을 할 경우 굳이 철거를 감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순천시와의 원
만한 해결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현재 순천시는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야생차 체험관의

철거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보전
을 염두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측과
의 접촉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야생차 체험관은 건립비용만 국비를
포함하여 약 44억원이 소용되었으며 만
약 철거 시에는 그간의 소송비용과 철
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은 물론 건립비용
망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월세가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야생차 체험관의 보
전과 합리적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순천시의 의지와 상고심
의 결과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전경



虎視牛行

- 주인된 자의 도리 -

선암사 주지 법 원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 장장 14개월을 끌고 왔던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항소 기각으로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암사 정상화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종단 사부대중의 정성과 기도의 덕택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소송은 순천시가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우리 절 경내에 무단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한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순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선암사의 정상화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태고종과의 분규로 지난 40여 년간 제한되었던 주인 된 자의 도리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선암사에서 관리는 향림사의 재산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절의 부지 중 하천변에 위치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우천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 종단이 함께 관리하던 터라 조계종과 태고종에 같이 연락이 갔지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던 차에 태고종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고종 측 의견이 정리 되었으므로 시에 부지 매각 되도록 도장을 찍어주자고요...

사찰의 재산 중 시주 아닌 것이 없고 시주물은 그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용처가 시주의 목적에 맞아야 하는 것이며 그 관리가 청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가 1,700년을 이어올 수 있던 것은 사찰을 부처님 앞으로 등기하고 수많은 선배스님들 공심어린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토지 매각에 앞서 순천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이 꼭 매입을 해야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사용을 승낙만 해 줘도 사업은 가능하며 그럴 경우 매입비로 산정된 예산을 공원조성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보정재를 지키면서도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고 향후 사중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삼보정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도 가람을 수호하고 불법을 흥포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에 불제자로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소의 걸음처럼 다소 느리더라도 하나씩 짚어보며 꼼꼼히 따져 사찰의 본질에 충실한가를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매섭게 살피며 도량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 된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고종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인 된 자세로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며 결과에 치중하여 과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승한 불사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종단 사부대중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

세상의 소리를 보고 중생을 구원하시다

- 순천 선암사 원통전 관세음보살좌상 -



1994년 선암사 사적기

2011년도 전수조사

정병 모양이 다르다.
연꽃받침은 수장고에 별도 보관중이다

선암사 원통각에 봉안되었던 관세음보살좌상으로 현재는 선암사 박물관 수장고에 모셔져 있다. 호암약휴 스님께서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자 조계산 배바위에서 100일 기도를 하였으나 친견치 못해 낙심하여 배바위에서 투신하였으나 이때 홀연 관세음 보살님이 나투시어 스님을 받쳐 안으니 호암스님은 이분이 관세음보살님임을 깨닫고 이듬해(숙종 24년, 1698년) 원통각을 중창하고 친견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조성하여 관세음보살좌상을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

불상의 크기는 상 높이가 82cm, 무릎 폭 54cm이며 지물로 정병을 들고 있으며 정병은 연꽃을 조각한 받침대로 받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정병받침을 분리하여 별도로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본 불상은 지난 2004년 진위여부에 휩싸이며 큰 내홍을 겪었으며 지난 2013년도에도 한차례 진위 여부에 휩싸였으나 2006년 전문가들의 조사와 2013년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자체 조사에서도 불상자체는 진불임이 확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선암사 원통전 관세음보살좌상

다만 2013년 11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대 실시한 개금으로 인하여 상호가 바뀌었으며 당시 복장조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현존하는 4건 4점(1책 3매)의 유물의 원래 복장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고 지물인 정병을 새로 조성하면서 원본이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



花開風雨日

還落雨風時

開落天然理

此看結實時

비바람 속에 꽃은 피었다가

비바람 속에 꽃은 저가네

피고 지는 건 자연의 이치거니

여기에서 열매 맺는 때를 보네.

원광경봉(圓光鏡峰, 1892-1982)

부처님의 생애(6)

수하항마(樹下降魔)

- 마왕을 항복시키시고 성불하시다 -

편집실



수하항마상
증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作

수행자 고타마는 고행을 포기한 뒤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 공양을 받아 기운을 회복하고 목동 스바스티카(吉祥)가 바친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을 보리수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굳은 다짐을 하였다.

"내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수행본기경》

수행자 고타마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려 하자 가장 다급해진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왕 파순이었다.

마왕 파순은, "사문 고타마가 깨달음을 성취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 깨달음의 경지는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가 깨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먼저 자신의 세 딸을 보내 고타마를 유혹하도록 하였으나 고타마는 수미산처럼 미동도 하

지 않고 마왕의 세 딸들을 모두 추한 노파로 만들어 물리쳤다.

그러나 마왕은 화가 나서 수행자 고타마를 향해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하였으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유혹과 폭력으로도 수행을 막지 못한 마왕은 직접 고타마 앞에 나타나 천륜성왕이 되어 권좌를 얻으라고 회유하였다.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을 향해 다음과 같은 준엄한 사자후를 한다.

"개으른 자의 무리여,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란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머나먼 과거세부터 한량없는 세월동안 선근공덕을 쌓아왔기에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마왕 파순은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고 외쳤다.

수행자 고타마는 오른손을 내밀어 땅을 가리키며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을 내어 차별이 없는 평등한 행을 하도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이때 땅을 지키고 있던 지신(地神)이, '가장 큰 대장부시여, 내 당신을 증명하리다. 제가 아나이다'라고 외치자

대지와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는 두루 크게 진동하였다.

마왕은 이 우렁찬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수하항마란 세 가지 욕망을 극복한다는 것, 다시 말해 육체적, 정신적, 제도적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마왕의 온갖 유혹과 물리적 위험, 그리고 회유를 극복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불퇴전의 수행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의 항복을 받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깊은 선정에 들었다.

이제 수행자 고타마에게 어떤 장애도 없게 되었다. 깨달음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던 악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구속이 사라진 수행자 앞에 세상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그 이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기에 저것도 멀하는 것이다'라는 연기(緣起)의 진리이다. 수행자 고타마는 바로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마왕의 항복을 받은 수행자 고타마는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이다.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 바로 성도절(成道節)인 것이다. ☺

순리에 순응하고 진실을 밝히고...

경문 정병택 변호사

편집실

현대 사회에서 사찰이라고 해서 세속과 담을 쌓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원래 사찰은 세속에서 중생들의 귀의처로서 자리를 해야 맞는 것인데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 사찰도 세속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도 많고 부득이 하게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도 왕왕 발생한다. 이럴 경우 대화로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의지처로, 교화처로 또 문화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법리적인 대응부분은 아직 일선 사찰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간혹 신도님들 중에 법조인이 있어 도움을 받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풀어야 한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일찍이 통과하고 불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주며 보살행을 하는 불자가 있으니 종단 법무실의 정병택 변호사다.

정변호사는 종단의 무수한 소송을 대응하면서 종단과 사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재산권 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펼쳐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법률적 자문을 통해 선암사 정상화에 일조하고 있는 정병택 변호사를 만나본다.



2014. 4.30. 차 체험관 철거소송 1심 승소에 대한 총무원장 표장 수상.

三盃通大道 一斗合自然

저는 변호사가 되고나서도 또 이 전부터도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순리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로서 종단에 들어와서 소임을 본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과 소송을 맡아 변론을 해왔습니다만 금 번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은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오래된 선암사 분규를 종식하고 정상화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랄까?

순천시로부터 선암사의 재산관리인 권한을 인계받던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차 체험관 철거소송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종단 법무전문위원으로서 종단의 기틀을 바로 잡고 오래된 분규를 종식하는데 역할을 하고 일조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암사 차 체험관 소송만큼은 꼭 대법원에도 승소해서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암사의 차 체험관 소송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입니다.

선암사에 대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등기권자로서의 권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고유의 권한이며 막강한 권한인 것입니다.

금 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백(李白)의 시 ‘독작(獨酌)’ 중에 다음 구절을 좋아합니다.

三盃通大道 一斗合自然

‘석잔 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말술은 자연의 도리에 합한다.’는 뜻인데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상호 가식을 버리고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또 불자로서 교단과 종단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법무전문위원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택 변호사.

본인의 소망처럼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완성하기를 기원해본다. ☺

경문(耕文) 정병택

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법무전문위원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긴 여정에 오르다. -

김희철 중무실장



쉐산도 파고다에서 바라본 일몰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 6일간 ‘한국의 전통 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 위한 연수가 미얀마에서 실시되었다. 추진위원회와 지자체, 당해사찰 실무자, 종단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15명이 참석하였다.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원과 불탑들에 놀라 입이 다물어 지질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시주와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니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인원을 동원해 조성하였던 앙코르 유적과

둘째날 양곤에서 현지 유네스코관계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하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신 세계 최고(最古)의 불탑인 쉘다곤 파야를 참배하였다. 세상에 이보다 장엄하고 환희로운 광경이 있을까? 이곳에서는 불교가 삶이고 삶이 불교다. 불공이 축제고 모두가 보살이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보리수의 손자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경외심을 일으켰다.

의 성지인 바간, 세계 최고의 불탑이 있는 양곤 등 세계문화유산과 등재 후보지역을 방문하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 현황을 살펴볼게 된 점은 의미 있었다.

또 푸 고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유네스코 관계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다른 추진 과정이었음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본격적인 푸 고대도시 유적탐방에 나선 셋째날은 6시간에 이르는 버스길에 이동 자체가 고행이었다. 우린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과 감사가 새삼 밀려왔다.

아울러 연수팀원들 간에 이루어졌던 활발한 토론과 논의는 아직 하나로 규합되지 못하고 상호 거리를 두고 있었던 7개의 사찰들이 서서히 공감대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등재추진과정에서 유효한 결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문화부 현지 책임자의 안내와 설명으로 이어진 이틀간의 푸 고대도시 답사는 세계의 고대도시유적 중 스리크세트라지역의 뻬에(Pyay)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옛 성벽과 고대 탑, 관개시설들을 돌아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이번에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통산사가 꼭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한다. ☺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푸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 유적 답사를 비롯하여 천불천탑



유네스코 전문가회의



푸 고대도시 스리크세트라 지역 유적 답사

캄보디아와 함께 고대 인도차이나반도를 호령하였던 바간제국의 저력이 남아있는 미얀마.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였다.

아직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수도였던 양곤을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이 매우 더딘 곳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주변과 비슷한 풍경이었다.

스님들이 탁발과 제가자들의 자발적인 공양이 고대부터 이어진 깊은 신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실감났다.

답사 첫날 방문한 바간은 말 그대로 온통 불탑과 사원이 가득한 곳이었다.

바간 쉘산도 파고다에서 바라본 일몰은 아마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드넓은 평원을 가득메운 불탑과 사원에 깔리는 노을은 말그대로 장관이었다.

현광(賢光) 김희철

선암사 중무실장



- 6월 소식 -

01.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미얀마 답사

지난 6월 2일 ~ 7일,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 한국의 산사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대상 7개 사찰 실무자와 관계기관, 종단 관계자등이 동참하는 미얀마 현지답사 및 워크숍에 김희철 종무실장이 참석하여 등재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02.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지난 6월 3일(수) 광주지방법원에서 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항소심이 항소 기각 판결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피고인 순천시는 상고, 피고 보조참가자였던 태고종 선암사는 상고 포기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3. 전통산사 등재 추진 위원회 식생조사

지난 6월 16 ~ 17일, 이틀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찰 주변 자연경관 등의 식생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주지스님과 면담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암사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중입니다.



04. 사암연합회 참석

지난 6월17일(수) 순천 죽도봉 흥륜사에서 순천지역 사암연합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참석하여 지난 봉축행사에 대한 평가와 정산보고에 이어 지역 교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5. 2015 문화재 다량소장처 유물관리교육 참석

지난 6월 25일 ~ 26일 이틀간 불교중앙박물관 주최하는 2015 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자, 관리자 유물관리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선암사 소장 유물과 문화재들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7월 예정일정 안내 -

01. 종무소 하반기 워크숍 실시 예정

지난 2015년도 상반기를 점검하고 더욱 더 내실 있는 하반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선암사 종무소 워크숍이 진행 예정입니다. 주지스님 이하 각 국장스님, 재가종무원들이 모두 동참하는 행사로 선암사 발전의 기틀이 되겠습니다.

02.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 적극 대응

지난 6월 19일부터 순천시가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항소심 패소에 따라 상고하여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진행 되어온 긴 소송이 원만하게 회항되어 선암사의 재산권을 지키고 정상화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03. 2015년도 문화재 기록화 사업 추진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원통전과 각황전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서 철저한 조사와 사료 수집 등으로 유의미한 보고서가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2015년도 종무소 하계 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오는 7월 27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하계휴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종무행정에 차질 없도록 종무원들이 교대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종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종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59년 7월 월례법회 안내

오는 7월 11일 토요일에는 월례법회를 병행합니다.
지난 달 성지순례 법회 이후 오랜만에 선암사에서 병행하게 됩니다.
신도님들과 신심을 고양시키고 친목을 도모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7월 월례 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7월 11일(토)
오전 11시
장 소 선암사 차 체험관
대 상 선암사 신도 누구나
동참금 1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불기2559(2015년) 상반기 성지순례법회 봉행

지난 6월 13일(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신도회에서 해남 대흥사와 강진 무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대흥사의 대웅보전과 서산대사 위패를 모신 표충사를 참배하고 주지 범각스님에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성지순례가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2. 카카오톡 동자승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 사용하기 캠페인

선암사 신도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보급하고 있는 카카오톡 동자승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신도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또 신도간 선물하는 등 활발한 활용으로 신도회 카톡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호 친목도모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3. 해인 강민수 신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해인 강민수 신도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립하기로 한 순천시(시장 조충훈)의 기초에 맞춰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를 통해 사업의 성공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1



02



03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 전화 : 061-725-5108
 계좌 농협 301-0128-6618-3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구독료 3만원/1년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중무소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 대학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 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에 준하여 설립한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터넷으로 불교교리를 학습하여 우리 종단의 핵심 신도로 양성함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 지원자격 : 조단등록을 필한 신도기독교 이수 신도
- 모집기간 : 매년 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 제출서류 : 기본교육 수료증, 신도증, 교무금융수증 사본 각 1부
- 수강료 : 과목당 10만원
- 비고 : 수료증, 부동품게품서,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

교육내용

1학기

- 금강경의 이해
- 불교개론 1
 - 불교란? 초기·부파불교
 - 부처님의 생애

2학기

- 불교개론 2 - 대승불교
- 불교개론 3 - 선의 세계

공덕이 되는 여행!

불자라면 코어트래블과 함께!

사찰명으로 상담문의 후 코어트래블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오시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사찰에 보시 됩니다.



히말라야 캠핑 트레킹

부탄, 인도, 네팔 전문여행(네팔 랜드사)

불교 성지 순례

인도 요가 TTC 연수

태국 치앙마이 타이 마사지 연수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롯데관광 상품판매

인센티브 맞춤 여행(개별 및 단체 여행)

골프, 허니문 등 기타 각종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 자유 여행

에어텔, 항공권, 호텔 예약, 비자 대행